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장인성*

시장경제는 주기적으로 침체와 회복을 되풀이하며 때로는 국가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심각한 불황이나 공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1970년대의 1, 2차 오일쇼크, 1990년대의 외환위기, 2000년대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2020년 2월경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경험한 위기와는 그 발생 원인과 파급 양상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주로 원자재나 금융부문의 문제로부터 발생하여 경제 전반으로 파급된 기존 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위기는 보건위기로부터 발생하여 전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하고 수요와 공급 전반을 매우 빠르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으로, 노동시장에 과연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 언제쯤 극복이 가능할 것인지 등을 발생 초기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위기 발생으로부터 2년 남짓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위기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의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충격이 산업이나 직업, 고용형태별로 미친 영향이 비대칭적이었던다는 점이다. 수출보다는 내수산업이 더 피해가 컸고, 그 가운데서도 대면서비스업의 피해가 컸다. 그리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에게 미친 타격이 더 컸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주요 경제위기에 비해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점이다. 실제 대면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특히 수출 제조업 등의 회복을 통해 종합경기지수는 2020년 하반기에 이미 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하였다. 물론 산업 활동의 회복보다 느린 고용의 회복으로 인해 일반적인 체감은 다소 다르다.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 등이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의 제약, 학교 및 돌봄 시설의 휴업 등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제약 및 부담이 증가하였고, 관광업, 요식산업을 비롯한 대면서비스업의 영업 제한이 이어진 것도 경제 회복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번 5월 특집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세 편의 글을 통해 파악해 본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여러 가지 경로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대면접촉을 필요로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jang@kli.re.kr).

하는 산업에서 일차적으로 수요가 급감하였고, 수출 수요 역시 초기에는 감소하였다. 수요 위축에 따른 공급 감소 외에 일상 활동의 제약은 공급부문에도 영향을 주었다. 산업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용 감소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산업별 산출량 및 고용수준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총수요 및 총공급에 충격을 주어 최종적으로 고용수준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측정하였다. 그리고 34개 산업별로 나누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산출량 및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실업률과 고용률, 취업자 수의 전년동기대비 변화율 등은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활용되어 왔으나 개별 고용지표는 각각이 가지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지표들의 각기 다른 움직임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그동안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로 사용되어 온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전통적인 노동시장 지표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종합지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상황지수(LMCI)를 작성하고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을 이전 위기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인구집단별 비정규직 비중과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이 특히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의 취업률, 신규입직률, 임금, 노동시간, 비자발적 이직률, 그리고 일시 휴직률에 미친 영향을 정규직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일반적인 비정규직 통계에서는 일자리를 상실한 비정규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자리를 유지한 비정규직만 조사하므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전 비정규직 비중과 코로나19 전후 고용·노동조건 변화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 중에는 고용 조정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서 발생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임금노동자 전체 소득 불평등이 증대되었다. 코로나19 위기는 경제위기 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KLI**